



마사회 유도·탁구단 연말 해체 ‘날벼락’ 제주SK 원정 6연전 첫 산 광주 넘었다

지난달 선수단 지도부 운영 종료 방침 전달
“유도단 제주 위상 제고... 일방 해체 안돼”

한국마사회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유도단과 탁구단을 올해 말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립 국회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달 6일 유도단과 탁구단 지도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두 선수단의 운영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선수단 측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해체 방침이 통보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선수는 2027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팀이 올해 말 사라질 경우 계약과 선수 생활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마사회 유도단과 탁구단은 오랜 기간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배출해온 국내 대표 실업팀이다.

특히 제주 연고팀인 유도단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기영을 시작으로 이원희(2004년 아테네), 최민호(2008년 베이징), 김재범(2012년 런던) 등 한국 유도를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했다. 제주출신인 남자 100kg급 김세현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강화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탁구단 역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선수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대표를 육성해왔다.

지도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문대립 의원은 “두 선수단은 최근까지 주요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마사회 유도단은 제주를 대표하는 실업팀으로 지역사회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공공기관 선수단은 비인기 종목 생태계와 실업 스포츠 기반을 지키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공적 자산인데, 최근까지 신규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했던 기관이 불과 몇 달 만에 해체 방침을 전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팀 해체로 절감되는 예산과 선수 및 지도자 보호 대책 마련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마사회는 문 의원 측에 “두 선수단의 해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9일 K리그1 28R 광주전 1-0 최병욱 활약... 12일 부천전

제주SK FC가 원정 6연전 시작인 광주FC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제주SK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제주SK는 최근 3연속 무패(2승1무)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11승9무8패, 승점 42로 리그 순위도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제주SK는 리그 최하위 광주를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공격력을 과시했다.

제주는 전반 7분 박수빈의 왼발 발리 슈팅으로 포문을 연 후 아이아스가 전반 17분 헤더, 24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잇따라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문을 향하지 못했다.

전반 막판에도 제주SK의 공세는 멈출 줄 몰랐다. 전반 34분 박수빈의 왼발 중거리 슈팅, 36분 아이아스의 왼발 발리 슈팅이 이어졌으나 모두



10일 광주FC와 경기에서 분전하는 제주SK 아이아스(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 골키퍼 김동화 손에 걸렸다.

후반들어 제주SK가 먼저 교체 카드를 꺼냈다. 후반 12분 정운과 신상운을 빼고 유인수, 최병욱을 동시에 투입하며 측면과 공격에 변화를 줬다.

교체 효과는 그대로 선제공로 이어졌다. 최병욱이 후반 17분 우측 면에서 중앙으로 파고 들면서 때린 왼발 중거리 슈팅은 아이아스를 스치고 골로 이어졌다.

기세를 탄 제주SK는 추가골을 노리며 후반 23분 세레스틴이 코너킥 기회에서 헤더를 시도했지만 높이 뜨고 말았다.

경기 막판 광주의 공세가 거세졌지만 제주SK는 흔들리지 않은 수비로 1-0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로 마무리 했다.

제주는 오는 12일 부천종합경기장에서 부천과 29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다이빙 기대주’ 고미주 금빛 연기 3관왕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여중부 플랫폼 등 1위

제주 다이빙 기대주 고미주(한라중1)가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하며 3관왕에 오르는 금빛 연기를 펼쳤다.

고미주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프레데리코 제주종합경기장 수영장에서 열린 제75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여중부 플랫폼과 1m스프링보드, 3m스프링보드에서 정상에 오르며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미주는 올해 경남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 은 1개 등을 따내는 맹활약을 펼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고부 기대주 이예주(남녕고3)도 3m스프링보드에서 금빛 무대를 선보인데 이어 3m싱크로에서 후배 김민선(남녕고2)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추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또 여초부 1m스프링 양예진(신제주초6), 플랫폼싱크로 김보경·오채은(한라중2), 남고부 1m스프링 강지호(남녕고3), 여대부 플랫폼 김민송(제주대3), 1m스프링·3m스프링 이가원(제주대2), 3m싱크로·플랫폼싱크로 김민송·이가원, 남일반부 1m스프링 김영남(제주도청)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남중부 플랫폼·3m스프링 김민중(한라중1), 3m싱크로·플랫폼싱크로 김민중·강주원(한라중1), 여중부 1m스프링·3m스프링 김보경(한라중2), 여고부 1m스프링 이예주(남녕고3), 플랫폼싱크로 이예주·부혜주(남녕고1), 남고부 플랫폼·3m스프링 강지호(남녕고3), 남대부 플랫폼·1m스프링·3m스프링 정진서(제주대), 남일반부 플



고미주

랫폼·3m스프링 김영택, 3m싱크로 김영택·김영호(이상 제주도청)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경영 자유형에서도 전국 최강자가 나왔다. 여초부 최재연(도평초6)은 자유형 200m 결선에서 2분11초25의 기록으로 오유나(경기, 2분11초63)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자유형 400m 결선에서도 4분30초61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오유나(4분36초85)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2개의 금메달을 신고했다. 위영석기자

제주대 검도부 전국검도선수권 단체전 3위

제주대학교 검도부가 전국 강호들과의 치열한 승부를 잇따라 이겨내며 대통령기 제48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에 올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에 따르면 제주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경북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16강에서 경

운대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조선대를 상대로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양 팀의 승부는 대표전까지 이어졌고, 제주대학교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준결승에서는 전국 정상급 전력

을 갖춘 경북대와 맞붙었다. 제주대는 경기 내내 물러서지 않고 맞섰으며, 정규 경기에서 2-2 동점을 기록하는 등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결국 승부는 다시 대표전으로 넘어갔다. 제주대 주장 고정민이 대표 선수로 나서 경북대 이수창과 맞붙었다. 고정민은 경기 막판까지 치열하게 맞섰지만, 상대에게 허리한판을 허용하며 0-1로 아쉽게 패했다.

위영석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